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퍼빙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 Phubb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Stress and Positive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Infants

1차원고접수: 2025.07.24. 수정원고접수: 2025.11.25. 최종게재결정: 2025.12.22.

신재영¹ · 홍예지²

¹인하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과정

²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조교수

Shin, Jae-Yeong¹

Hong, Yea-Ji²

¹Div. of Child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²Dep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퍼빙이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어머니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 관계에서 퍼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총 223명의 만 3~5세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연구에 참여 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 퍼빙의 매개효과는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4번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퍼빙의 하위요인 및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퍼빙을 매개로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쳤고, 이때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퍼빙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 부분 매개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어머니의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퍼빙 행동을 점검하고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서적 지원 및 디지털 미디어 관련 부모 교육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어 어머니의 스트레스, 퍼빙,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mothers' stress and phubbing on positive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young childre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hubb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tress and positive mother-child communication. A total of 223 mothers with children aged 3 to 5 year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ith SPSS 22.0,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hubbing was tested using Model 4 of the SPSS PROCESS macro.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Mothers' stres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ll subfactors of phubbing and positive mother-child communication. In addition, mothers' stress influenced positive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young children through phubb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hubbing was partial.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manage mothers' stress, to monitor phubbing behaviors,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emotional support and digital media-related parent education programs that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phubbing and promote positive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young children.

Keywords mother's stress, phubbing, positive communication of mother-child, mediating effe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머니와 유아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유아 발달의 핵심적 요인이다. Bowlby의 애착이론은 주 양육자와

유아 자녀 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기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장기적인 심리적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Bowlby, 1982). 양육자가 유아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가용성을 제공할 때, 유아는 양육자를 '안전기지(safe base)'로 인

Corresponding to 홍예지 (Hong, Yea-Ji)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심리학과, 조교수 (Dep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E-mail. yjhong@inha.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식하며,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게 되고, 이는 정서 조절과 사회적 기술 발달의 기반이 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2015; Cassidy, 1994).

긍정적 의사소통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이해와 존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Ahmed, 2020; Muñoz Velázquez, & Pulido, 2019). 어머니와 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은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 유아가 보내는 신호에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서적 교류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상호적 소통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Bozicevic, De Pascalis, Cooper, & Murray, 2025), 유아가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Alkon et al., 2003; DeLoretta & Davis, 2024; Zinsser, Gordon, & Jiang, 2021). 유아기는 언어, 인지, 사회성 및 정서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경험하는 어머니의 반응적이고 수용적인 의사소통은 안정적인 애착과 자아개념 형성 및 사회적 기술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환경적 요소가 된다(김선영, 김희진, 2015; 황윤세, 2022). 따라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머니와 유아 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시간 관리의 어려움, 역할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빈번히 직면하며(정윤주 2023; 김영미, 김정미, 2017), 이러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유아 자녀 간의 긍정적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유아 자녀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일관적 반응성을 낮춰 이는 결과적으로 어머니-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을 낮춘다(장지우, 김선희, 2020; 최혜윤, 2017; Miroslavjević & Sablić, 2025). 이처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서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결과적으로 유아 자녀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가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Bruinhof, Beijers, Lustermaans와 de Weerth(2025)는 실험적으로 유도된 급성 스트레스가 모성 양육 행동 및 영아의 정서 반응에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권수진

(2017)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의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주기적인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도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Neuman(1988)의 미디어 대체 이론(media displacement theory)은 인간이 가진 시간과 인지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특정 미디어 활동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류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부정적인 양육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Kara-Yakoubian, 2024; Kildare & Middlemiss, 2017)는 것이다.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두할수록 자녀가 보내는 신호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민감성이 낮아지며, 이러한 양육 환경은 자녀의 정서 표현과 언어적 상호작용 기회를 제한(McDaniel & Radesky, 2018; Radesky et al., 2014)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기술(technology)과 방해(interference)의 합성어로 테크노퍼런스(technoferece) 개념이 생겨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phone)과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snub)의 합성어인 퍼빙(phubbing)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테크노퍼런스가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전체를 아우르고, 이러한 디지털 기기인한 대면 상호작용의 방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퍼빙은 스마트폰에 한정하여 대면 상호작용 중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타인이나 주변 환경에 무심하거나 상대방을 소외시키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Xu & Xie, 2023).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이 주의력을 분산시켜 자녀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 둔감하게 만든다(Konrad et al., 2021)는 것이다. 반대로 어머니의 퍼빙 행동으로 인해 자녀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인식하거나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고 어머니의

관심을 얻기 위해 스마트폰과 경쟁해야 한다고까지 느끼기도 한다(Braune-Krickau et al., 2021). 다양한 디지털 기기 중 스마트폰은 개인의 일상에서 매일 사용되고, 퍼빙은 일상에서 쉽게 목격되며,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8b)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퍼빙이 어머니와 유아 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단순히 내면의 감정적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같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김진경, 윤혜주, 2020). 즉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퍼빙이 증가하고(Lv, Ye, Chen, Zhang, & Wang, 2022; Ye Hong, 2024), 유사한 맥락에서 스마트폰 과몰입이 높아졌음(윤정민, 홍정순, 2019; 최성자, 2019)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단순한 정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퍼빙으로 발현되어 궁극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경험한 어머니는 현실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 회피의 수단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몰두하며(Seo & Kim, 2014), 이는 퍼빙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유아 자녀와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낮은 정서적 반응성과 민감성이 직접적인 소통의 양과 질을 감소시킨다(Bury, Jancey, & Leavy, 2020; Radesky et al., 2014)는 것이다. 이처럼 주로 세 변인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의 한계에서 나아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와 유아 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의 직접적 관계가 어머니의 정서적 민감성이나 양육 태도, 양육 행동과 같은 중간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퍼빙이 이들이 지각하는 정서와 실제 자녀와의 의사소통 행위를 이어 주는 중요한 매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유아 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변인으로 어머니의 정서적 요인 중 스트레스와 행동적 요인 중 퍼빙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된 퍼빙이 어머니와 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확

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스트레스, 퍼빙,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퍼빙은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120명(65.9%), 40대 55명(30.2%), 20대 5명(2.7%), 50대 2명(1.1%) 순으로 많았으며,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96명(44.4%), 2년제 대학 졸업 79명(36.6%), 고졸 이하 27명(12.5%), 대학원 재학 이상 14명(6.5%) 순으로 많았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15명(51.6%), 여아가 108명(48.4%)이었고, 연령은 만 3세 70명(31.4%), 만 4세 81명(36.3%), 만 5세 72명(32.3%)으로 구성되었다. 출생 순위는 첫째(외동 포함)가 160명(72.7%), 둘째가 47명(21.4%), 셋째가 13명(5.9%)이었다.

2. 측정 도구

1)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위해 Lovibond와 Lovibond(1995)가 개발한 DASS(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를 Henry와 Crawford(2005)가 21문항으로 축약시킨 척도를 Lee, Kim, Park와 Lee(2011)가 한국인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어판 DASS-21’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스트레스(stress)의 세 개의 하위요인, 각 7문항씩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나 본 논문에서는 스트레스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문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

(N = 223)

변인	구분	n	%
어머니 연령	20대 (26 ~ 29)	5	2.7
	30대 (30 ~ 39)	120	65.9
	40대 (40 ~ 49)	55	30.2
	50대 (50 ~ 52)	2	1.1
	무응답	41	18.4
어머니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7	12.5
	2년제 대학 졸업	79	36.6
	4년제 대학 졸업	96	44.4
	대학원 재학 이상	14	6.5
	무응답	7	3.1
자녀 성별	남아	115	51.6
	여아	108	48.4
자녀 연령	만 3세	70	31.4
	만 4세	81	36.3
	만 5세	72	32.3
자녀 출생 순위	첫째 (외동 포함)	160	72.7
	둘째	47	21.4
	셋째	13	5.9
	무응답	3	1.3
자녀 수	1명	90	40.4
	2명	113	50.7
	3명	20	9.0

항은 ‘나는 안정을 취하기 힘들었다.’, ‘어떤 상황에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모든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고 느꼈다.’, ‘자꾸 초조해졌다.’, ‘진정 시키기 어려웠다.’,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내가 꽤 신경질적이라고 느꼈다.’로 구성된다. 어머니 자기보고로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 스트레스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0이다.

2) 퍼빙

퍼빙을 확인하기 위해 Chotpitayasunondh와 Douglas (2018a)가 개발한 퍼빙 행동(Generic Scale of Phubbing: GSP)을 한국인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한 김민범, 최재광 및 송원영(2022)의 ‘한국판 퍼빙 척도(Korean Phubbing Scale; PS-K)’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노모포비아(nomophobia),

대인관계 충돌(interpersonal conflict), 자기 고립(self-isolation) 각 4문항과 문제 인식(problem acknowledgement) 3문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요인별 문항은 다음과 같다. 노모포비아는 ‘나는 스마트폰이 내 주변에 없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나는 절대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나는 스마트폰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둔다.’, ‘스마트폰을 틈틈이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은 걱정이 들곤 한다.’, 대인관계 충돌은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한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한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스마트폰을 끄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짜증이 난다.’, ‘내가 스마트폰을 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해도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자기 고립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내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스마트폰에서 더 만족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그만두고 스마트폰에 주의를 기울이면 기분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경을 끄고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문제 인식은 ‘나는 의도한 것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다른 사람과 대화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그냥, 조금만 더 하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로 구성된다. 어머니 자기보고로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자주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퍼빙 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노모포비아 .82, 대인관계 충돌 .89, 자기고립 .92, 문제인식 .80이고, 전체는 .92이다.

3) 어머니-유아 긍정적 의사소통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을 확인하기 위해 Barnes와 Osion(1982)의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고희선(2010)이 유아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촉진적 의사소통, 개방적 의사소통, 일방적 의사소통의 세 개의 하위요인 각 5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요인별 문항은 다음과 같다. 촉진적 의사소통은 ‘나는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준다.’, ‘나는 아이에게 말한 다음 꼭 아이의 대답을 들어본다.’, ‘나는 아이와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는 가능하면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항상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의 말을 무조건 믿어준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나는 아이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간에 가로막지 않고 아이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준다.’, ‘아이는 내게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한다.’, ‘나는 아이와 이야기할 때 편안하고 즐겁다.’, ‘나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

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아이가 나에게 대한 불만을 이야기해도 나는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일방적 의사소통은 ‘나는 아이에게 잘한 일보다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한다.’, ‘나는 아이가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면 투덜대고 화를 낸다.’, ‘나는 내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이야기한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결정하고 아이는 따르도록 한다.’, ‘나와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 주로 내가 이야기하는 편이다.’로 구성된다. 어머니 자기보고로 각 문항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다. 촉진적 의사소통과 개방적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기능적임을 의미하며,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선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을 의미하도록 일방적 의사소통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촉진적 의사소통 .89, 개방적 의사소통 .83, 일방적 의사소통 .77이고, 전체는 .93이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총 5명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파악하고 소요 시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문항의 이해도를 높였고, 소요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에 소재한 3개 사립유치원을 유의 표집 한 후, 원장님과 담임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취지가 담긴 설명문을 유아의 각 가정에게 전달하였고, 연구에 동의한 어머니 280명에게 종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38부를 회수(85.0%)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15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2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어머니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1매가 제공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분석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퍼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유아 자녀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나이와 성별(고영아, 강은희, 2021; 허미애, 오미경, 2022) 및 어머니 연령과 학력(허미애, 오미경, 2022; 황은아, 2020)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측정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각 변인 간의 하위요인 별로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가 2.14점($SD = .89$), 퍼빙의 하위요인인 노모포비아는 2.88점($SD =$

.96), 대인관계 충돌은 1.37점($SD = .58$), 자기 고립은 1.43점($SD = .61$), 문제 인식은 2.43점($SD = 1.08$)이었으며,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촉진적 의사소통은 4.19점($SD = .59$), 개방적 의사소통은 4.10점($SD = .59$), 일방적 의사소통은 2.43점($SD = .79$)이었다. 모든 변인의 왜도 절댓값 2 이하, 첨도 절댓값이 7 이하를 보여 자료가 정규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50 \sim .78$ 사이로 변인 간 하위요인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퍼빙의 하위요인인 노모포비아($r = .15, p < .001$), 대인관계 충돌($r = .31, p < .001$), 자기 고립($r = .26, p < .001$), 문제 인식($r = .24, p < .001$) 및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 하위요인인 촉진적 의사소통($r = -.25, p < .001$), 개방적 의사소통($r = -.34, p < .001$), 일방적 의사소통($r = .50, p < .001$)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촉진적 의사소통은 자기 고립($r = -.17, p < .05$) 및 문제인식($r = -.20,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개방적 의사소통은 대인관계 충돌($r = -.17, p < .05$), 자기 고립($r = -.21, p < .01$) 및 문제인식($r = -.21,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일방적 의사소통은 노모포비아($r = .22, p < .01$), 대인관계 충돌($r = .36, p < .001$), 자기 고립($r = .35, p <$

표 2.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 = 223$)

	1	2	3	4	5	6	7	8
1	1							
2	.15***	1						
3	.31***	.37***	1					
4	.26***	.30***	.52***	1				
5	.24***	.51***	.44***	.40***	1			
6	-.25***	-.05	-.37	-.17*	-.20**	1		
7	-.34***	-.06	-.17*	-.21**	-.21**	.78***	1	
8	.50***	.22**	.36***	.35***	.36***	-.40***	-.50***	1
<i>M</i>	2.14	2.88	1.37	1.43	2.43	4.19	4.10	2.43
<i>SD</i>	.89	.96	.58	.61	1.08	.59	.59	.79
왜도	.57	.18	2.04	1.33	.40	-.36	-.30	-.50
첨도	-.51	-.60	4.60	1.03	-.58	-.56	.14	-.36

주. 1 = 스트레스, 2 = 노모포비아, 3 = 대인관계 충돌, 4 = 자기 고립, 5 = 문제인식, 6 = 촉진적 의사소통, 7 = 개방적 의사소통, 8 = 일방적 의사소통.

* $p < .05$. ** $p < .01$. *** $p < .001$.

.001) 및 문제인식($r = .36,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퍼빙의 매개효과

유아의 나이와 성별, 어머니 연령과 학력을 통제 변수로 설정한 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퍼빙의 매개효과를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퍼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는 퍼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 = .21, t = 4.30$). 퍼빙에 대한 설명력은 15%($F = 5.77, df = 170.0$)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퍼빙이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즉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긍정적 의사소통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27, t = -6.00$), 퍼빙은 긍정적 의사소통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0, t = -3.09$).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퍼빙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긍정적 의사소통의 23%($F = 12.00, df = 169.0$)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 관계에서 퍼빙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를 실시하였으며,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고 표본 수 5,000개를 재추출하였다. 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95% 신뢰구간의 하한값(-.08)과 상한값(-.01)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35)과 상한값(-.18)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

표 3.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퍼빙에 미치는 영향

($N = 223$)

종속변인	통제 및 독립변인	B	β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퍼빙	(상수)	1.50		.27	5.63	.98	2.03
	유아 나이	.03	.05	.05	.72	-.06	.13
	유아 성별	.02	.02	.07	.26	-.13	.17
	어머니 연령	.06	.06	.07	.86	-.08	.20
	어머니 학력	.03	.04	.05	.55	-.07	.12
	스트레스	.21	.31	.05	4.30***	.12	.31
	$R^2 = .15, F = 5.77^{***}, df = 170.0$						

*** $p < .001$.

표 4.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퍼빙이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N = 223$)

종속변인	통제 및 독립변인	B	β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긍정적 의사소통	(상수)	4.66		.24	18.87	4.17	5.14
	유아 나이	.03	.05	.05	.71	-.06	.13
	유아 성별	.02	.02	.07	.26	-.13	.17
	어머니 연령	.06	.06	.07	.86	-.08	.20
	어머니 학력	.03	.04	.05	.55	-.07	.12
	스트레스	-.27	.31	.04	-6.00***	-.35	-.18
	퍼빙	-.20	-.22	.07	-3.09**	-.40	-.07
	$R^2 = .23, F = 12.00^{***}, df = 169.0$						

** $p < .01$. *** $p < .001$.

표 5. 어머니 스트레스가 퍼빙을 매개로 어머니-유아 긍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유의성의 검증 결과

변수	Effect	S.E.	95%	
			BootLLCI	BootULCI
총효과	-.31	.04	-.40	-.22
직접효과	-.27	.04	-.35	-.18
간접효과	-.04	.02	-.09	-.01

주. BootLLCI =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ULCI =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bootstrapping 표본은 5000번 추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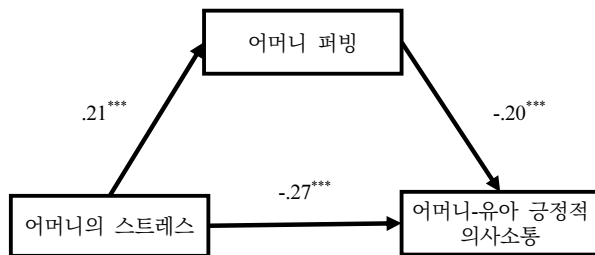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퍼빙의 매개효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어머니 스트레스의 영향이 퍼빙에 의해 부분 매개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퍼빙 수준이 높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어머니와 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을 낮춘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퍼빙 및 어머니와 유아 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확인하고,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 관계에서 퍼빙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유아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장지우, 김선희, 2020; 최혜윤, 2017; Miroslavljević & Sablić, 2025)를 지지하는 결과로 유아 자녀와의 효과적이고 긍정적

의사소통을 위해 어머니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을 주요하게 예측하는 정서적 반응 변인으로 작용하며(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이러한 스트레스는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에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Seginer, Vermulst, & Gerris, 2002),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유아와의 의사소통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 퍼빙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몰입이 유아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는 연구(McDaniel & Radesky, 2018; Radesky et al., 2014)와 맥을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보이는 퍼빙 행동은 단순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유아와의 의사소통의 저해 및 상호작용 과정에서 필수적인 눈 맞춤, 정서적 반응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의 무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어머니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감정적 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퍼빙이 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방해받을 수 있는 퍼빙의 다양한 사례를 인지하고, 체험하여 상호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수정하는 적극적인 인지행동전략이 퍼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적 지원 전략이 함께 제시

된다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어머니-유아 자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낮출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퍼빙을 매개로 어머니-유아 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어머니는 현실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 회피의 수단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Seo & Kim, 2014), 퍼빙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유아 자녀와의 직접적인 소통의 양과 질을 감소시킬 수 있음(Bury, Jancey, & Leavy, 2020; Radesky et al., 2014)을 지지하는 결과다. 즉 Lazarus와 Folkman의 심리적 스트레스 및 대처 이론(Biggs, Brough, & Drummond, 2017)과 스마트폰 사용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Radesky et al., 2015)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2017)은 특정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처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정서적 반응과 행동이 달라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Radesky와 동료들(2015)은 부모가 디지털 기기에 몰입할수록 자녀와 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퍼빙이라는 구체적 행동을 매개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서 퍼빙이 부분 매개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관리 및 디지털 미디어 사용 조절 교육이 단순히 어머니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자녀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위한 예방적 개입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퍼빙은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의 질적 저하와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낮추고,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Zhang et al., 2023).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도를 약화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상호작용의 역기능을 심화시킬 수 있다(Pang, Wang,

& Kang, 2025). 어머니의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된 퍼빙이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정서적 교류를 방해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됨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 향상과 건강한 의사소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와 행동적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후 이러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적 상태와 퍼빙이 시너지를 일으켜 유아의 신체, 정서,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로 확장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 중인 3 ~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에 표집 지역의 제한성과 소규모의 표본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에도 한계가 있다. 연구 결과를 전국의 유아와 어머니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되며, 이에 다양한 지역 및 연령, 기관을 포함한 폭넓은 표본을 통해 반복 연구를 실시한다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의사소통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족 내 다양한 구성원의 영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포함한 양육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유아와의 의사소통 양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상호작용 특성을 다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참여 관찰, 일지 작성 등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이 보완되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수진 (2017).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아동교육*, 26(1), 181-196.
<https://doi.org/10.17643/KJCE.2017.26.1.09>
- 고영아, 강은희 (2021). 상호작용 촉진 부모교육이 언어발달 지연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25(3), 165-186.
<https://doi.org/10.34262/kadd.2021.25.3.186>
- 고희선 (2010). 부모-유아 의사소통 및 형제변인에 따른 유아의 또래 간 갈등해결의 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범, 최재광, 송원영 (2022). 한국판 퍼빙 척도(PS-K)의 타당화. *발달지원연구*, 11(1), 15-40.
<https://doi.org/10.22839/adp.2022.11.1.15>
- 김선영, 김희진 (2015). 어머니 자녀간 애착, 상호 반응적 지향성,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5(4), 425-444.
<https://doi.org/10.18023/kjece.2015.35.4.019>
- 김영미, 김정미 (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상호작용 행동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7(2), 169-187.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2.008>
- 김진경, 윤혜주 (2020).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6), 53-70.
<https://doi-org-ssl.openlink.inha.ac.kr/10.14698/jkcece.2020.16.06.053>
- 윤정민, 홍정순 (201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다차원적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1(3), 151-174.
<https://doi.org/10.36431/JPE.11.3.8>
- 장지우, 김선희 (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유아의 자기통제력 및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정도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41(1), 61-74.
<https://doi.org/10.5723/kjes.2020.41.1.61>
- 정윤주 (2023).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0(4), 33-46.
<https://doi.org/10.15284/kjhd.2023.30.4.33>
- 최성자 (2019).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혜윤 (2017).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유아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육아지원연구*, 12(3), 47-69.
<https://doi.org/10.16978/ecec.2017.12.3.003>
- 허미애, 오미경 (2022). 부모공동양육과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6(5), 189-209.
<https://doi.org/10.32349/ECERR.2022.10.26.5.189>
- 황윤세 (2022).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34, 107-123.
<https://doi.org/10.37918/kce.2022.5.134.107>
- 황은아 (2020). 유아 언어발달 및 유아지능과 어머니 언어입력 간의 관계.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hmed, A. H. (2020). Positive communication: The new shift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in the Millennium*, 2020, 1-11.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N. (2015).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0203758045>
- Alkon, A., Goldstein, L. H., Smider, N., Essex, M. J., Kupfer, D. J., & Boyce, W. T. (2003).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autonomic reactivity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biology*, 42(1), 64-78.
<https://doi.org/10.1002/dev.10082>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H. I. McCubbin, H. L. Barnes, A. S. Larsen, M. J. Muxen, & M. A.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pp. 33-48).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Biggs, A., Brough, P., & Drummond, S. (2017). Lazarus and Folkman's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theory. In C. L. Cooper & J. C. Quick (Eds.), *The handbook of stress and health: A guide to research and practice* (pp. 349-364). Chichester, West Sussex, UK: Wiley Blackwell.
<https://doi.org/10.1002/9781118993811.ch21>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NY: Basic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ozicevic, L., De Pascalis, L., Cooper, P., & Murray, L. (2025). The role of maternal sensitivity, infant temperament, and emotional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cientific Reports*, 15(1), Article 17271.
<https://doi.org/10.1038/s41598-025-01714-8>
- Braune-Krickau, K., Schneebeli, L., Pehlke-Milde, J., Gemperle, M., Koch, R., & von Wyl, A. (2021). Smartphones in the nursery: Parental smartphone use and parental

- sensitivity and responsiveness within parent-child interaction in early childhood (0-5 years): A scoping review.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42(2), 161-175. <https://doi.org/10.1002/imhj.21908>
- Bruinhof, N., Beijers, R., Lustermaans, H., & de Weerth, C. (2025). Mother-infant stress contagion? Effects of an acute maternal stressor on maternal caregiving behavior and infant cortisol and cry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66(7), 1040-1052. <https://doi.org/10.1111/jcpp.14119>
- Bury, K., Jancey, J., & Leavy, J. E. (2020). Parent mobile phone use in playgrounds: A paradox of convenience. *Children*, 7(12), Article 284. <https://doi.org/10.3390/children7120284>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28-249. <https://doi.org/10.1111/j.1540-5834.1994.tb01287>
- Chotpitayasunondh, V., & Douglas, K. M. (2018a). Measuring phone snubbing behavi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eneric Scale of Phubbing (GSP) and the Generic Scale of Being Phubbed (GSBP).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8(1), 5-17. <https://doi.org/10.1016/j.chb.2018.06.020>
- Chotpitayasunondh, V., & Douglas, K. M. (2018b). The effects of "phubbing" o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8(6), 304-316. <https://doi.org/10.1111/jasp.12506>
- DeLoretta, L., & Davis, E. L. (2024). Convergent and divergent parental emotion socialization processes shape children's emotional responding. *Social Development*, 33(3), e12739. <https://doi.org/10.1111/sode.12739>
- Henry, J. D., & Crawford, J. R. (2005). The short-form versi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21): Construc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in a large non-clinical samp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2), 227-239. <https://doi.org/10.1348/014466505X29657>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1-39. <https://doi.org/10.1007/BF00844845>
- Kara-Yakoubian, M. (2024, September 30). Parent phone use linked to family time disruptions and increased stress. *PsyPost*. Retrieved July 21, 2025, from <https://www.psypost.org/parent-phone-use-linked-to-family-time-disruptions-and-increased-stress/>
- Kildare, C. A., & Middlemiss, W. (2017). Impact of parents mobile device use on parent-child interaction: A literature re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5(1), 579-593. <https://doi.org/10.1016/j.chb.2017.06.003>
- Konrad, C., Hillmann, M., Rispler, J., Niehaus, L., Neuhooff, L., & Barr, R. (2021). Quality of mother-child interaction before, during, and after smartphone use. *Frontiers in Psychology*, 12, 616656. <https://doi.org/10.3389/fpsyg.2021.616656>
- Lee, K. W., Kim, S. J., Park, J. B., & Lee, K. J. (2011).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 (DASS) and urinary hydroxyproline and proline concentrations in hospital workers. *J Prev Med Public Health*, 44(1), 9-13. <https://doi.org/10.3961/jpmph.2011.44.1.9>
- Lovibond, P. F., & Lovibond, S. H. (1995). The structure of negative emotional states: comparis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 with the Beck Depression and Anxiety Inventor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3), 335-343. [https://doi.org/10.1016/0005-7967\(94\)00075-u](https://doi.org/10.1016/0005-7967(94)00075-u)
- Lv, H., Ye, W., Chen, S., Zhang, H., & Wang, R. (2022). The effect of mother phubbing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mother-Child attachment and parenting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4), Article 16911. <https://doi.org/10.3390/ijerph192416911>
- McDaniel, B. T., & Radesky, J. S. (2018). Technoference: Parent distraction With technology and associations With child behavior problems. *Child Development*, 89(1), 100-109. <https://doi.org/10.1111/cdev.12822>
- Mirosavljević, A., & Sablić, M. (2025). The complex interplay of parental stress and parenting styles: A comprehensive review of recent literatur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and Pedagogy*, 2(2), 201-219. <https://doi.org/10.70232/jrep.v2i2.53>
- Muñiz Velázquez, J. A., & Pulido, C. M. (2019). *The routledge handbook of positive communication: Contributions of an emerging community of research on communication for happiness and social change* (1st ed.). New York, NY: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207759>
- Neuman, S. B. (1988). The displacement effect: Assessing the relation between television viewing and reading performance. *Reading Research Quarterly*, 23(4), 414-440. <https://doi.org/10.2307/747641>
- Pang, G., Wang, C., & Kang, C. (2025). The relationship

- between parental phubbing and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closeness and negative emotions. *BMC Psychology*, 13(1), Article 364.
<https://doi.org/10.1186/s40359-025-02671-7>
- Radesky, J. S., Kistin, C. J., Zuckerman, B., Nitzberg, K., Gross, J., Kaplan-Sanoff, M., Augustyn, M., & Silverstein, M. (2014). Patterns of mobile device use by caregivers and children during meals in fast food restaurants. *Pediatrics*, 133(4), e843-e849.
<https://doi.org/10.1542/peds.2013-3703>
- Radesky, J., Miller, A. L., Rosenblum, K. L., Appugliese, D., Kaciroti, N., & Lumeng, J. C. (2015). Maternal mobile device use during a structured parent-child interaction task. *Academic Pediatrics*, 15(2), 238-244.
<https://doi.org/10.1016/j.acap.2014.10.001>
- Seginer, R., Vermulst, A., & Gerris, J. (2002). Bringing up adolescent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child-rearing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5), 410-422.
<https://doi.org/10.1080/01650250143000355>
- Seo, H. S., & Kim, Y. H. (2014). The determinants of smartphone addiction among mothers of infants, focusing on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rental stress, and parental knowledg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5(5), 1-14.
- Xu, C., & Xie, X. (2023). Put down the phone and accompany me: How parental phubbing undermines prosocial behavior of early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49, 106958.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3.106958>.
- Ye, H. (202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퍼빙(Phubbing)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Zhang, J., Dong, C., Jiang, Y., Zhang, Q., Li, H., & Li, Y. (2023). Parental phubbing and child social-emotion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studies conducted in China.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6(1), 4267-4285.
<https://doi.org/10.2147/PRBM.S417718>
- Zinsser, K. M., Gordon, R. A., & Jiang, X. (2021). Parents' socialization of preschool-aged children's emotion skills: A meta-analysis using an emotion-focused parenting practices framework.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5(2), 377-390.
<https://doi.org/10.1016/j.ecresq.2021.02.001>.